

사형 구형 받은 '또래 엮기 살인' 정유정...오는 24일 선고

검찰 "사회서 영원히 격리"...정유정 사형 구형 정유정 측, 불우한 성장·양극성장애 등 감형 호소 법조계 전문가들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 전망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1심 재판이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종착역을 향한다.

오는 24일 재판에서 정유정이 어떤 형량을 받게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유정의 범행에 대해 자신의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동기(문지마)'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과의 엮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몰색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계획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 또한 다시는 이런 끔

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정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정유정 측은 피고인이 특수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정유정 측은 결심에서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조부와 새할머니 등의 폭행으로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와 우울 에 피소드를 앓고 있는 점을 심신미약으로 고려해달라. 만약 감경되지 않는다면 정상으로 잠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정은 또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0일 열린 다른 사건에서 정유정의 반성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반성문에 대해 "본인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선고를) 해달라는 그런 식의 내용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라"고 비판하며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문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정유정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부산지법 형사6부는 최근 사형이 구형됐던 '양정 모녀 살인' 사건과 '부산역 보복 살인' 사건 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었다.

위 사건들처럼 사형이 구형된 정유정에게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유정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여러 감형 요소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

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한편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중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A(20대)씨의 집에 들어간 뒤 가져온 예코백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10분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A씨를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전 1시 12분께 A씨의 시신 일부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온라인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0대)씨와 C(10대)군을 유인해 살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슬비기자



'감귤 빛으로 물든 제주의 겨울' 추위가 물러나고 예년 기온을 회복한 1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한 감귤 농장에 바라본 한라산 남벽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 시선을 끌고 있다.

갑자기 푹 떨어진 기온...소방청, '겨울철 긴급구조대책' 추진

비상근무 계획 수립 및 소방력 재배치

소방청은 최근 기온의 급강하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2023년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해 연평균 한랭질환자 377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계량기 2만여 대가 파손됐다. 또 최근 3년간 한파로 인한 사망자 28명 분석 결과 70대 이상이 15명으로, 주로 고령층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등에 대비해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주요내용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겨울철 현장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 ▲지자체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출동로 확보 등이다.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 119신고접수대를 확대 운영하고,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한다. 전국 240개 소방관서는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또 폭설·도로결빙 등에 대비해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스노우체인, 염화칼슘 등 월동장비를 소방차량에 적재하고, 출동차량

결빙방지를 위한 유지 관리도 철저히 한다. 이에 더해 전국 시도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아울러 폭설로 인한 고립지역 등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해 현장 출동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는 등 출동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평균 기온은 상승 추세지만 갑작스런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폭설 및 한파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 등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권기자

불법도박사이트 상습탈세, 집행유예+벌금 180억6750만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

고 판시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62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명계좌로 도박금을 받은 뒤 소득 관련 증빙 서류와 장부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 대금 입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매입 세액의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 포탈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A씨가 과세 대상인 매출·수입을 철저히 은닉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는 2021년 도박 공판개시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